

5. 김씨 집안이 마을을 떠난 까닭

등명동(燈明洞)에 김씨(金氏)들이 살았는데, 자손들이 묘지(墓地) 선정을 풍수가에게 청하였더니 마을 중앙의 산 등에 묘지를 정하고 굴착하다가 석곽이 나오면 석곽을 파괴하지 말고 그 위에 안장(安葬)토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자손들이 석곽을 파괴하여 버렸는데, 그 파괴된 석곽 속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김씨(金氏) 일가는 망하여 이 마을을 떠나 버렸다 한다.

제6절 명도2리(明道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화성리와 연결하고 소백산(小白山)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건너편의 능선은 봉평리 지역이다. 서쪽은 현종산(縣鍾山)이 바라보이고, 북면 사계리와 울진읍 정림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현종산(縣鍾山) 지맥인 마을 앞산이 있고, 산 너머는 호월리 지역이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세거리(三居里)

개척(開拓) 연대는 미상이며, 울진 읍내리로 가는 길과, 죽변으로 가는 길, 사계(沙溪)와 하당(下塘)으로 가는 길이 교차하는 산정(山頂)에 형성된 10여 가구의 작은 촌락이다.

2) 아산동(鵝山洞)

1592년(선조 25)에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를 지낸 경주인(慶州人) 최한우(崔漢佑)가 관직(官職)을 그만두고 울진에 내려와 산수(山水)가 수려함을 보고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주위의 산(山)과 앞 못(池)에 기러기가 많이 서식(棲息)하고 있음을 보고 마을 이름을 아산(鵝山)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광주 노씨(光州盧氏)가 입주(入住)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3. 가구 분포

총 4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 노씨(光州盧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대표적 성씨이다.

4. 마을의 특징

1) 아산영당(鵝山影堂)

문창후(文昌候) 최치원(崔致遠)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배향(配享)하는 조선 후기 사묘(祠廟)이다. 1888년(고종 25)에 유림에서 창건하였고, 최치원의 유상(遺像)을 봉안하였으며, 1925년에 최익현의 진영(眞影)을 추가로 봉안하고 향중에서 음력 10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강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2) 약수(藥水)터

아산영당(鵝山影堂) 가까운 산 중턱에 있는 노송(老松) 밑에서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는데 피부병[특히 옷이 올랐을 때]에 특효라고 전한다.

3) 현종사(縣鍾寺)

조선 초기에 산 중턱에 현종사(縣鍾寺)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이 산을 현종산(縣鍾山)이라 하였는데, 매우 높은 산(山)이다. 지금은 사찰(寺刹)이 폐허(廢墟)되었다.

제7절 신림리(新林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중첩된 산길을 따라 4km 거리에 고성2리인 가원동(佳原洞)이 있고, 서쪽은 마을 우측 산(山) 정상(頂上)을 경계로 대흥리(大興里)가 있으며, 멀리 악구산(岳丘山)이 있다. 남쪽은 읍남4리와 접하고, 북쪽은 정림리와 호월리인 용저동(龍渚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신림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마을회관은 2000년에 신축되었다.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신림보건진료소가 2012년에 건립되었다. 울진군이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